그 사람 지금은

(20) 이환의 前 한나라당 부총재

"85년 DJ 민권회 영입 제의 거절"

"DJ(김대중 전 대통령)와는 정치부 기자 때부터 절친했어요. 그런데 1985년 그가 정치해금이 되면서 '민권회'를 조직할 즈음, 박권상 동아일보 주필이 나를 찾아왔어요. DJ가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절했지요. 나를 발탁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는 견원지간이었는데 한 때 '잘 나간다'고 모른체하고 따라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지조있는 선비 집안 출신이 그래서는 안 되지요"

이환의 전 한나라당 부총재는 고향인 광주·전남에서 주류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 정치 재개를 한 DJ는 행정부와 정계에 다양하게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그의 힘이 필요했으며 때문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었다. 그 이후로도 이중재 의원이 전화로 '민권회 지도의원으로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바로 집으로 찾아가 거절의사를 확실히 했다고 이 전 부총재는 회고했다.

그는 이에 대해 "내 관운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촌놈으로 태어나 도지사와 언론사 사장을 했는데 뭘 더 바라느

박정희 前대통령과 인연 깊은데…

지조없이 정치도의 저버릴수야

냐.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자였던 이 부총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64년. 당시 정부는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언론계는 집단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언론계 대표와 박 대통령과 면담이 대전 금수장호텔에서 이뤄졌다, 그는 이 자리에 기자협회 대표로 참석했다.

"여러 언론계 대표들이 참석했으나 대통령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언론상황을 일본에 빗대 설명했는데 대통령 맘에 들었나 봐요"

이 전 부총재 당시 발언의 논지는 '일본 3대 노조의 춘투는 현장에서 보면 일본이 금방 쓰러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음날 신문에는 전혀 다뤄지지 않거나 아주 조그맣게 다뤄진다. 또 일본 외무성 기자들은 특종도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익을 우선시해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 선정적, 비판적 기사와 제목이 난무한다. 가판 판매부수가 크게는 신문 전체, 좁게는 편진국장과 주요부장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런 양국 언론의 차이는 경영안정에서 기인한다. 한국 언론은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잘 팔리는 방향으로 편집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 용지 보급에 대한 쿼터를 풀어주고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선정적 제목을 뽑지 않고도 신문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발언을 참고로 언론정책은 펼쳐졌다.

이후 정치부장을 하고 있던 1966년, 그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내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선을 앞둔 박 대통령이 야당 신문의 정치부장급 두 명을 뽑아 공화당 대변인과 내무부 기획관리실장을 맡기라고

약 력

- ▲1931년 영암 출생
- ▲광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전라북도 지사
- ▲MBC·경향신문 사장
- ▲14대 국회의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이사장
- ▲한나라당 광주시당위원장·국책자문위원장

지시를 내렸어요. 저는 거부했고 동아일보 모부장은 대변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증인이 돼 달라'며 내무부장관을 통해 계속 설득해와 수락했습니다"

그는 선거가 끝난 뒤 2년 정도 전라북도 지사를 지냈고 1971년에는 MBC 사장을 맡았다. 이 전 부총재는 "지사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청와대로부터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갔더니 박 대통령이 '임자가 문화방송 사장을 맡아'라고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1974년에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인수 지시를 받은 뒤 은행장 회동을 주관, 경향신문 부채 19억8천여만원에 대한 단계적 변제방안을 논의, 인수할 수 있었다"며 "이후 문화방송·경향신문 단일 법인의 통합 사장을 1980년까지 지냈다"고 말했다.

1980년 이후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가 귀국, 대학 강의로 시간을 보내던 그는 1988년 총선(영암 출마) 실패를 극복하

1970년 1월 당시 전북도지사를 하고 있던 이환의(왼쪽) 전 한나라당 부총재가 전북도를 방문한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호남지역 야산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고 1992년(14대)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특히 그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광주 수습책'을 이끌어 내고 1995년엔 당론을 어기면서 5·18 특별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나아가 대통령을 설득, 1995년 11월 5·18 특별법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 전 부총재는 이후 두 번의 총선과 한 번의 지방선거 낙선을 겪으면서 정치인생에 있어 내리막 길을 걷다가 지난 2004년 6월 13년간 지켜온 시당위원장 자리를 후배에게 넘기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번 대선 끝나면 정치서 은퇴

대학에서 후학들 가르칠 계획"

그는 요즘, 서울시내에 3개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장실,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이사장실, 부영그룹 고문실이 그것. 고문실은 사적인 만남에 이용하고 나머지는 업무 성격에 따라 왕래하고 있다. 그가 1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 국책자문위원회는 전 장차관, 재선이상 전 국회의원, 전 시도지사, 전 군장성 등으로 구성된 당 원로 모임이다. 쟁점이 되는 정책과 안보 문제 등에 대해 세미나로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전달해주고 있다.

건강은 아주 좋다. 등산을 자주하고 매일 취침 전후로 30분씩 하는 스트레칭이 효과를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시당위원장 할 때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보였다. 광주에서 한나라당 활동을 하는 스트레스가 줄었느니 당연할 듯 싶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씻을 생각입니다. 대학에서 후학이나 가르쳐야지요"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화순탄광

1905년 첫 탄광광업권 획득

1927년 본격적인 채탄 작업

화순 땅은 전라도에서 유별나다. 백아산 석회암과 운주사 일대 응회암, 동면과 한천면에는 석탄이 분포한다. 강원·경상도와 연결돼 있는 지질구조 때문이다.

3억년 전 쯤 식생이 퇴적된 고생대 평안누층군은 무연탄이 매장돼 있다. 동국여지지와 대동지지에 '흑토점(黑土岾)'이 현 동쪽 25리에 있고, 그 내력은 검은 흙이다. 바로 동면 복암리 일대로 주암호 가는 국도변에 시커먼 철망이 탄광지대임을 짐작케 한다.

구암(龜岩)과 복림(福林)이 합자된 복암리 일대의 석탄은 1904년 박현경(1883~1950)의 눈에 띄고, 이듬해 한국인 최초 탄광 광업권을 얻어낸다. 1908년 채탄하여 화력은 못 냈다. 박현경은 화순 토호 박인규와 김정일 사이 1남1녀로 향청리 115번지에서 커 일본유학에서는 김성수, 송진우와 사귄다. 누나 경희(농선)는 궁내부 대신 박영효의 부인이 된다.

1915년 복암리 891번지 748평을 매입하고,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끝날 무렵 '동암(東岩)탄광'을 연다. 대리 일대에 과수원과 벽라교 천변에 170두락 규모의 농토를 조성한 현경은 채산과 관계없이 석탄을 캘 뜻을 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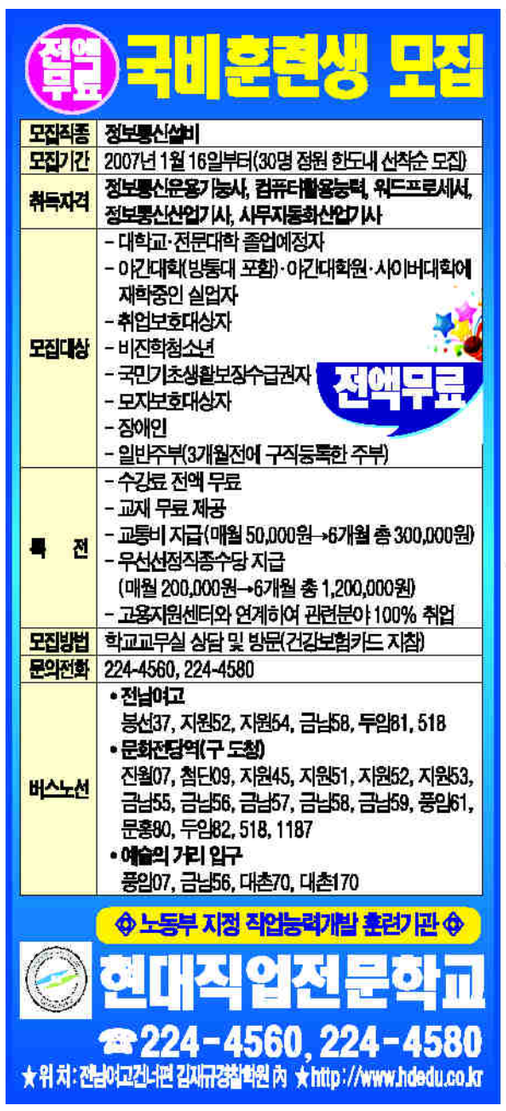
화순군 동면 구암리 화순광업소.

1927년 일본지질학자의 조사결과 무연탄과 토상 흑연광상이 있음이 밝혀져 본격적인 채탄작업이 이뤄졌다. 100여명의 노동자를 동원하여 하루 7~8톤까지 생산했다. 운반비를 비롯한 수익성이 문제였다. 결국, 1934년 석탄확보를 원한 종연방직(鐘淵紡織)이 인수하고, 1942년 화순-복암(11㎞)간 전용 산업철도까지 놓았다.

광복 직후 미군정 관할이다가 다음해 상공부 소속이 되었다. 1947년 근무자가 2천명 가량 달했고, 1950년 대한석탄공사로 출발했다. 1957년 영빈관 천운장(天雲莊)에서 유래한 광산촌도 형성됐다.

1967년 복암역 발송톤수가 46만7천톤에 이르렀다. 당시 화순은 탄광경기를 탔다. 천운마을에는 복지문화관, 극장, 석공연립주택, 광업소부속병원까지 설치되었다. 접대부를 고용한 식당들도 늘어섰다.

1989년 1천669여명 근무, 70만톤 생산이 고비였다. 이후 연탄소비가 줄고,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한천면 오음리에 있던 민영 호남탄좌도 1992년 폐광됐다.

지난해 700명의 종업원이 27만여톤을 생산했다. 7할은 서천 화력발전소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연탄공장에 팔렸다. 지금까지 복암리 화순탄광 3천여ha 17개 광구에서는 2천400만톤이 생산됐다.

옛 박현경 집에는 같은 밀성 박씨 행산공(杏山公)파 집안인 박남기의 처 국사례(90)씨가 살고 있다. 1950년 서울로 간 현경의 손자 근용에게 6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매화동 별장터는 한국하이빌아파트가 들어섰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